



즉시 사용

비고

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 배포

담당

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

과장 심종섭, 서기관 심정환
(044-200-2048, 2049)

이낙연 국무총리, 첫 '총리·부총리 협의회' 개최

▶ 3월 국정현안 폭 넓게 논의, 국정인식 공유와 협업강화 위해 격주 개최키로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6일(화) 오전(09:00~10:00),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총리·부총리 협의회(이하 협의회)를 개최했습니다.
- 이 협의회는 총리, 부총리와 주요장관이 국정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현안을 사전조정하기 위해 개최키로 한 것으로,
 - 오늘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, 김상곤 사회부총리, 강경화 외교부장관,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.
-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 및 총리가 매주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특정안건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라면, 이 협의회는 분야별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격의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회의체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오늘 1차 회의에서는 3월의 주요 국정일정, 정책동향 및 주요 당면정책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폭넓게 논의했습니다.

- 특히 △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노동현안, △최저임금 현장안착, △한국GM 대응, △성희롱·성폭력 대책, △청년일자리대책 및 저출산대책, △통상현안 대응, △패럴림픽 준비 및 올림픽후 대책, △남북관계 새로운 전개 및 이와 관련한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도 논의했습니다.
- 총리와 양 부총리 및 회의 참석자간 국정상황 공유 및 공동인식, 정책현안에 대한 소통 및 정책조율 등의 측면에서 동 협의회 모임 논의가 매우 유익했다는 데 공감하고, 앞으로 정기적으로 동 회의를 개최기로 했습니다.
- 이에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 개최 직전에 총리-부총리협의회를 개최(격주 개최)기로 하였으며, 오늘 참석자를 고정 참석자로 하되 필요시 현안관계장관도 참석토록 할 예정입니다.